발표 및 심사

심사위원용 안내 책자

SCOF

01
안녕하세요, ICISTS 입니다.

저희 행사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이유와 SCOF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COF 2022

ICISTS가 사회에 주고 싶은 Impact!

안녕하세요.
과학 기술과 사회 사이의 벽을 허무는 도전자들, ICISTS(아이시스츠)입니다.

저희는 2005년부터 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를 주제로 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컨퍼런스 <ICISTS Conference>를 개최하였고, 2019년부터 스타트업의 도전하는 정신을 주제로 한 <Graffiti Startup Festival>을 열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SCOF(Science COmmunication Festival) 2022>를 기획하였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과 대중 사이의 소통 문제는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야기하고, 유사 과학이나 과학 산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모두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 기인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부재는 인재의 부족에서 시작합니다. 첫째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둘째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의지는 있으나 활동의 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SCOF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의 목적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가자들이 과학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만드는 생산자의 역할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방법을 알리며, 관심 분야가 비슷한 이공계 예술 종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이 사회에 나아가 택할 자신의 진로로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을 모으고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해냄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SCOF 2022는 3일, 6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54명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저희의 메인 세션은 크게 3가지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해 설명하는 토크 콘서트, 이를 직접 시도해보는 팀 프로젝트,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들과 대학생을 한자리에 모으는 네트워킹 파티가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팀 프로젝트 또한 현업자들과 대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매체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행사의 결과는 행사 내부에만 머물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사회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팀 프로젝트들의 산출물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개되고 아카이빙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을 양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최 | ICISTS 대전광역시 주관 | 대전과학문화지역거점센터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OP.GG nst KAIST GOPIZZA

02
SCOF가 생각하는
Science Communication

Science Communication

과학 소통: 과학을 전달하는 것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과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의 과학화, 과학의 문화화 등을 이룩하여
대중에게 가치가 있는 학문, 현대인의 필수 소양임을 인식하는 것.

과학 기술의 개발에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건전한 과학 기술 문화의 형성하고 미래를 향해 연구 및 R&D에 자원을 쏟는 것.

등등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저희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한 목적과 수단이 공존하는 그 자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SCOF는 고민했습니다.

"과학을 전달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희는 처음으로 돌아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무엇인지,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Science

과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일까?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과학이란, 자연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배우는 학문이었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수립해 놓은 공식과 이론들은 대중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장 삶을 살아가는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명확한 이해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개념들 투성이인,
신기하지만 혼자 알아보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학문.

저희는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과학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 스스로가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며 '우리 삶을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음'에 매료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우주를 그저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논리의 과정을 거쳐 최선을 찾아나아가는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지식의 총합 +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

Communication

과학은 더 이상 개념들이 모여 이루어낸 지식의 총합만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과학을 전달한다는 것의 의미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과학 소통은 '과학 개념을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SCOF가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과학 소통의 경험은 다음을 추구합니다.

과학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톤 앤 매너

+

개념 그 너머, 과학이라는 학문 기저에 존재하는 메시지

톤 앤 매너 Tone and Manner

과학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전문화된 정보들을 가공하여 대중과 가깝게 만드는 작업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과학 대중화'와 그 의미를 나란히 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갖추어야 할 필수 소양입니다.

메시지 Message

과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조금은 모호한 표현이지만 예시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시) 과학자들의 삶의 태도, 과학사의 인과성, 과학과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 등

과학 개념 Knowledge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다가오는 요소입니다.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원리와 법칙을 발전시킨 것.
과학 개념은 팀 프로젝트의 산출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토대를 담당합니다.

03
평가 요소 및 심사 기준

SCOF가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평가 요소

SCOF 2022는 이러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합니다.

심사 기준 - 연극

공통 기준

콘텐츠에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콘텐츠에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나는가?
콘텐츠의 내용과 그 구성이 유기적인가?
콘텐츠의 종류(연극)가 주제를 드러내기에 적절했는가?
적절한 수단(소품과 효과음, 자료 등)을 사용했는가?

주제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적절한가?
과학 개념을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는가?
단순 과학 개념의 전달만이 아닌 과학 커뮤니케이션(메시지 전달)을 했는가?
전달한 과학 개념에 오류는 없는가?

창의상

콘텐츠가 전달하는 내용(주제, 메시지), 그 구성,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소품과 효과음, 자료 등)의 독창성 및 차별성, 창의성

연출상

주제 및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출 방식, 완성도 있는 장면 전환,
적절한 조명 사용,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배경 및 소품의 사용

각본상

스토리라인의 개연성과 핍진성,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
청중의 높은 몰입도와 집중도, 효과적인 주제 및 기획 의도 전달

심사 기준 - 영상

공통 기준

콘텐츠에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콘텐츠에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나는가?
콘텐츠의 내용과 그 구성이 유기적인가?
콘텐츠의 종류(영상)가 주제를 드러내기에 적절했는가?
적절한 수단(소품과 효과음, 자료 등)을 사용했는가?

주제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적절한가?
과학 개념을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는가?
단순 과학 개념의 전달만이 아닌 과학 커뮤니케이션(메시지 전달)을 했는가?
전달한 과학 개념에 오류는 없는가?

창의상

콘텐츠가 전달하는 내용(주제, 메시지), 그 구성,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소품과 효과음, 자료 등)의 독창성 및 차별성, 창의성

기획상

주제 및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톤 앤 매너,
명확한 정보의 전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자료의 사용

크리에이터상

스토리라인의 개연성, 청중의 높은 몰입도와 집중도,
효과적인 편집 기법(자막 및 효과 등) 사용, 재치 있고 흥미로운 영상 소스 활용

심사 기준 - 웹툰

공통 기준

콘텐츠에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콘텐츠에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나는가?
콘텐츠의 내용과 그 구성이 유기적인가?
콘텐츠의 종류(웹툰)가 주제를 드러내기에 적절했는가?
적절한 수단(작화 방식)을 사용했는가?

주제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적절한가?
과학 개념을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는가?
단순 과학 개념의 전달만이 아닌 과학 커뮤니케이션(메시지 전달)을 했는가?
전달한 과학 개념에 오류는 없는가?

창의상

콘텐츠가 전달하는 내용(주제, 메시지), 그 구성,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작화 방식)의 독창성 및 차별성, 창의성

기획상

주제 및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톤 앤 매너,
명확한 정보의 전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자료의 사용

웹툰작가상

스토리라인의 개연성, 청중의 높은 몰입도와 집중도,
효과적인 편집 기법(자막 및 효과 등) 사용, 완성도 있는 작화, 상업성 및 대중성

04
심사 세션 안내

SCOF 심사 세션의 진행 방식과 세부 시간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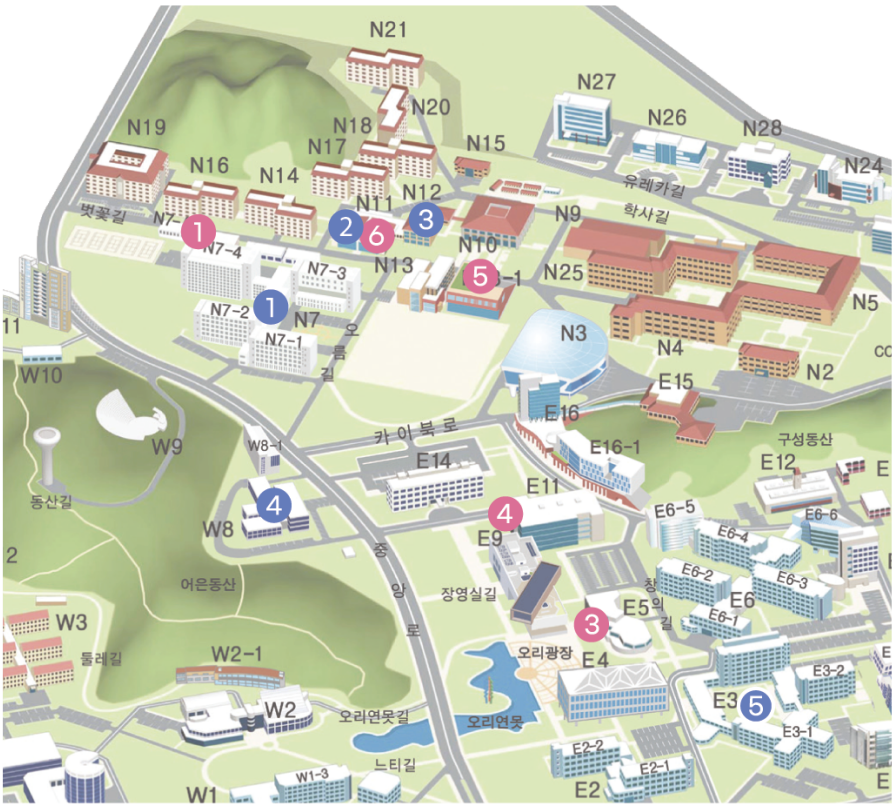
장소 및 일시

장소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대전 본원)
태울관 (N13) 1F 미래홀

일시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14시



1. 기숙사 (N14, 16, 19)
2. 태울관 (N13)
3. 동측식당 (E5)
4. 창의학습관 (E11)
5. 장영신학생회관 (울림홀) (N13-1)
6. 카이마루 (N11)

1. 카페드림 (N7)
2. 쥬스킹 (N11)
3. 북측매점 (N12)
4. 카페드롭탑 (W8)
5. 동측매점 (E3)

심사 방식 및 세부 시간표

"과학 소통 축제"

심사 세션은 3일간 열심히 달려온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본인의 산출물을 시연하며 타 트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가자들이 SCOF 2022를 통해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본인만의 정의를 내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민을 통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에 가까워지는 값진 경험을 하길 희망합니다.

따라서 본 심사의 목적은 순위를 부여하여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과 동기부여를 통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미래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각 트랙 별로 참가자들이 했던 고민과 산출물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본 책자 뒤편의 백지에 피드백을 기록하고, 심사 기준에 맞게 시상해주시면 됩니다. 객관적 척도가 아닌 주관 평가로, 심사위원분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극

창의상
연출상
각본상

영상

창의상
기획상
크리에이터상

웹툰

창의상
기획상
웹툰작가상

심사 방식 및 세부 시간표

트랙별 발표 시간

연극

발표 3분 + 연극 10분 + 질의응답 7분

영상

영상 시청 8분 + 발표 5분 + 질의응답 7분

웹툰

웹툰 감상 5분 + 발표 5분 + 질의응답 7분

세부 시간표

14:00~14:05	세션 오프닝
14:05~17:30	발표 및 질의응답
17:30~17:35	심사
17:35~17:55	시상 및 수료증 발급
17:55~18:00	클로징

세션 오프닝

사회자가 세션 시작 멘트 및 심사위원 소개

발표 및 질의응답

참가자의 발표 및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심사

심사위원의 상 결정 및 참가자의 행사 사후 설문지 작성